오늘의 복음



"가 인 과 아 벨 " (창세기 4:1-15)

■ 들어가는 말

나의 첫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1.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3절)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절)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2.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4절)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3.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 (5절)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4. 나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였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5.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이 글 속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결단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기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함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끊어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대화를 건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청합니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